

일터

방학 중 취업 스펙 쌓기

나만의 이력... 구직고개 넘어라

을 하반기 취업은 전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채용 인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일수록 자신만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어학 실력과 자격증, 인턴, 해외연수, 봉사활동 등 차별화된 '스펙(SPEC) 쌓기' 방법을 알아본다.

외국어 학습 캠프·실전 경험 등 전남대·조선대 프로그램 다양

◇외국어 학습과 취업 캠프 참여는 필수다=토익에만 치중하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웬만한 기업에서도 해외 진출을 고려, 영어 면접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생활 회화나 비즈니스 회화 실력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남대가 오는 20일부터 3주간 실시하는 '영어 캠프'는 이같은 취업 현장 분위기를 감안,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 캠프도 짧은 기간 동안 입사 지원부터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전남대의 경우 오는 10~11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실시하는 취업캠프 참가자를 추가 모집중이고 조

선대도 8월10일까지 취업준비반 금융·공기업 분야 취업생 150명을 모집한다.

캠프에서는 취업동향을 비롯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이미지메이킹, 행동기법, 모의 면접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직무교육 등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기업구조·경영전략·마케팅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미니 MBA'교육(8월17일~25일)은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미 취업자 직무별 역량강화 프로그램(8월17~21일)'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들에게 마케팅·영업, 경영·기획, 금융

분야(은행·증권·보험)에 필수적인 직무교육을 하루 8시간씩 집중 실시한다.

◇실전 경험 쌓기=여름방학에는 학기 중에 못한 실전 경험 쌓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인턴십, 공모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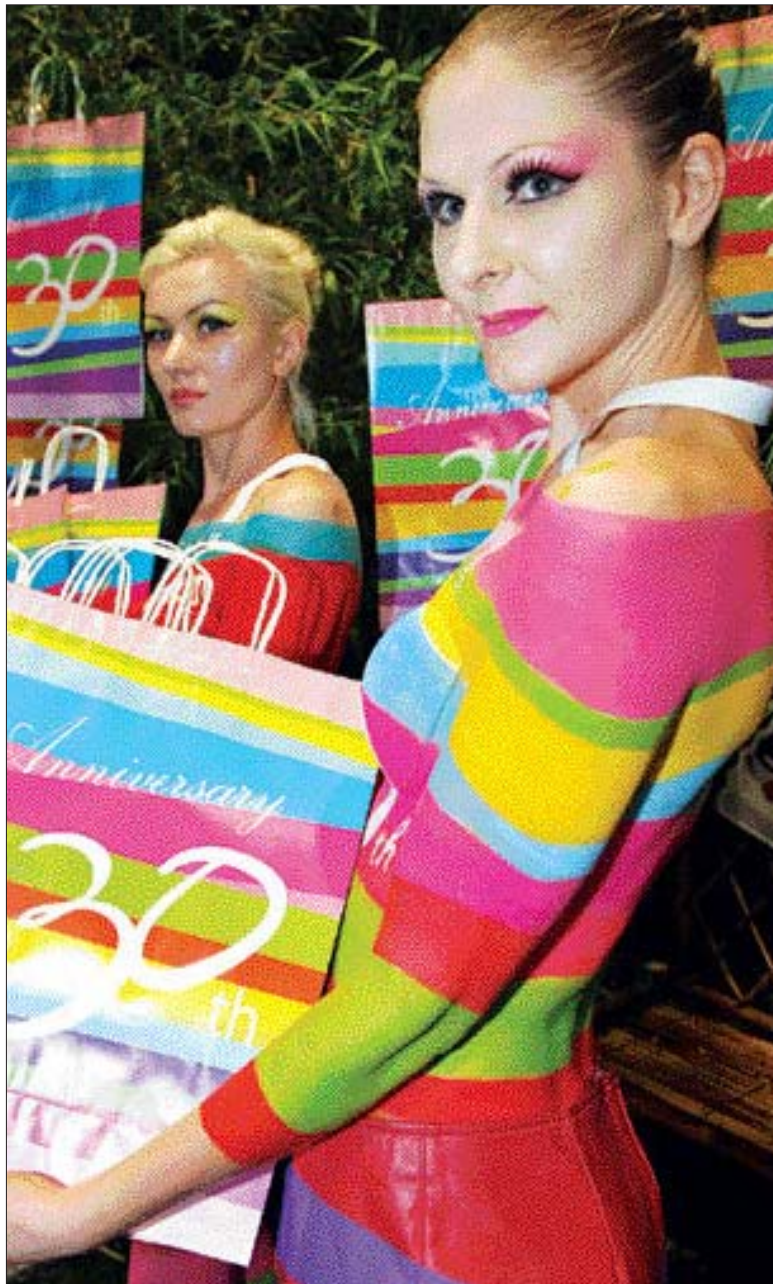
조선대가 추진중인 취업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경력과 경험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조선대는 8월7일까지 46명을 모집, 광주은행·KT·시립박물관 등 40여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4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정의 활동비를 챙기고, 관심 분야의 인맥도 쌓을 수도 있는 과정이다.

공모전 입상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SK C & C의 대학생 IT 공모전(접수 8월 24일~9월1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문화재단의 '2009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공모전'(접수 9월7일~25일) 등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업·지방자치단체·연구소 등의 공모전도 다양한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모집기간	일시	내용	모집인원	문의
전남대	취업캠프	7.3	7.10~11	모의면접·취업특강	80명	530-1111
	미니 MBA	7.3	8.17~25	기업구조·경영전략·마케팅 등 경영마인드 교육	40명	
	미취업자 직무별 역량강화	선착순	8.17~21	금융·경영·기획 등 직무분야 전문성 향상교육	120명	
조선대	취업준비반	6.22~8.10	8월 말	취업동향·면접 이미지메이킹·취업추천	150명	230-7575
	취업현장실습	7.27~8.7	8.31~12.18	광주은행·KT 등 40여개 기업현장체험	46명	



롯데백화점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컬러 쇼핑백을 공개했다. 쇼핑백은 여름 세일 마지막날인 12일까지만 사용된다. /연합뉴스

고졸이하·남성 비정규직 더 서럽다

경제위기에 실직 많아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 비정규직이 지난해 보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경우가 많은 반면, 대졸 이상은 오히려 늘어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비정규직은 537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563만8천명에 비해 26만4천명이 줄었다.

이중 남성 비정규직은 262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284만3천명보다 21만7천명이 감소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9만5천명에서 274만8천명

로 4만7천명이 줄었다. 남성 비정규직 감소인원은 여성의 4.6배다. 이에 따라 남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48.9%로 1년전의 50.4%에 비해 1.5%포인트 떨어졌다. 여성은 49.6%에서 51.1%로 올라갔다.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의 비정규직이 232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252만2천명보다 19만6천명이 줄었다. 중졸은 70만6천명에서 63만8천명으로 6만7천명, 초졸이하는 78만3천명에서 77만3천명으로 1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졸이상 학력의 비정규직은 162만7천명에서 163만6천명으로 9천명이 늘었다. /연합뉴스

"방학동안 돈 벌었으면..."

대학생 10명 중 7명 응답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계획은 '용돈·등록금 벌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대학생 1천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용돈·등록금 벌기'라고 답한 학생들이 72.9%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여름방학은 이제 등록금 1천만원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목돈을 벌어야 하는 기간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여행 10.5% ▲취업준비 8.3% ▲취미 여가생활 4.8% ▲해외연수 3.6% 순이었다. 특히 '용돈·등록금 벌기'를 선택한 응답자 중 81.7%가 1학년인 것으로 나타나 입학과 함께 '알바 전선'에 나서야 하는 실태를 반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방학알바' 시급 4천원 미만 땀 신고

노동부 23일부터 점검

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납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의 아르바

이트가 활발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실시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임금이 밀리거나 최저임금(시급 4천원) 미만으로 받았을 때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에 업주를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연합뉴스

광주·전남 채용박람회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시와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등이 주최하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 등 7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2009 광주전남 채용박람회'가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내 채용계획이 있는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5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주최 측은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구인 내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에 부스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ib.com

본점 (061) 227-9940

충장점 (061)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52-9200

익산점 (063) 851-2422

신행안내

7월 18일

7월 18일

7월 18일

0431-1107

코베아 오토캠핑

인플라 20% 할인

7월 18일